

# 행복의 법칙 경전에 다 있어

지 않는 계율도 없다고 했다.

“술은 무려 36가지 잘못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혹독한 망신살이 항상 숨어 있어요. 술은 지혜와 좋은 뿌리를 없애고 법의 보배를 모두 없애니 큰 도끼와 같고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원이라 했어요. 제 정신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반야방이나 곡차니 하는 별명으로 마시기도 하고, 신통이 자재한 고승의 흉내를 내어 무애행으로 여겨 불을주계를 지키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한다면서 부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한 맹세를 깨뜨리는 파계는 결코 자랑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계율은 부처님의 교육관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정한 것이 계율인데,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는 후손이 잘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수행자의 위외에 맞지 않게 웃을 일거나 행동한다면 타인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겠지요? 계율이 없으면 부처님의 법도 있을 수 없어요.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정법(正法)이 빨리 없어짐을 부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원래 도(道)라고 하는 것은 ‘눈 위에 찍힌 사슴의 발자국’을 뜻한다고 해요. 사냥꾼이 발자국을 따라 사슴을 포획하듯이 구도자는 스승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해탈문에 들어서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닮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철우 스님은 ‘법은 바로 부처님의 유산’이라 했다.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가 열두 살 되던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라훌라의 손목을 이끌고 제자인 사리불에게 가서서는 “이 아이를 출가시켜라”고 이르렀다. 부처님의 유산은 바로 ‘법’이었던 것이다. 이 법은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물려준 유산이란. 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佛法)을 스스로 망치는 것이라면서 과연 유산대로 잘 살고 있는지 모두 반성해 볼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부처님은 ‘지혜, 계율, 도덕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지계(持戒) 제일’인 우바리 존자가

아기를 들려주었다.

우바리는 궁중에서 머리를 깎는 이발사였다. 이발사라는 직업은 인도의 사(四)계급 중 가장 천한 계급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고향에 돌아오셔서 법을 설하자 석가족의 왕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출가했다. 왕궁에서 왕자들의 머리를 깎아주던 우바리는 천한 몸으로는 출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

다.

“부처님은 많은 귀족들의 반감을 샀지만 교단 안에서의 일체 불평등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출신에 관계없이 교단에서는 평등했고, 부처님 자신도 평등한 일원으로서 일체의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철우 스님은 ‘계는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별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불가에서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참회(懺悔)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 용서와 관용으로 감싸주는 너그러움이 있다. 우선 참회라는 말의 뜻을 나누어 보면 스스로 범한 잘못을 누우쳐 용서를 비는 것을 참(懺)이라 하고 과거의 잘못을 누우치고 부처님, 보살님 이른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사과하는 일을 회(悔)라 한다. 철우 스님은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으나 그 수습하는 태도에 따라 크게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백 년 동안 때 묻은 옷이라도 하루 동안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백 천겁 동안에 지은 모든 악한 일도 불법의 힘으로 잘 수습해서 닦으면 일시에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스님께 행복의 법칙을 여쭙았더니 ‘경전에 행복의 법칙이 다 나와 있다’고 답했다.

“행복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쓸 데 없이 큰 욕망을 버리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방이 수십 개라도 내가 누워 잘 곳만 한 칸이요, 땅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 묻힐 곳은 한 평이면 됩니다. 내가 과연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란 불자로서 오계를 잘 지키고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어느 시인은 모든 소망을 단념하고, 목표와 욕망도 잊어버리고, 행복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때 영혼은 비로소 쉬게 되는데, 그때 행복이 찾아온다고 했다. 행복을 누릴 만큼 성숙해 있을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철우 스님은 한 마디라도 허투루이 내뱉지 않는다. 부처님의 육성을 바탕으로 해서 법문하고 경책하는 것이다. 오늘 스님의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육성을 오롯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은 출가를 허락했다. 우바리가 출가한지 17일째 되는 날, 난타 왕자는 정식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부처님은 늘 하던 대로 출가한 순서대로 절을 받게 하시었다. 난타는 차례로 절을 하다가 맨 끝에 앉은 우바리 앞에 이르러서는 절을 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불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고 정진해 덕을 닦아 교만한 마음을 항복 받는 수행의 결과가 제일이다. 출가한 순서로 정해지나니 형으로 삼아서 존경하고 대접하도록 하라.”

그러나 난타는 선뜻 우바리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간곡하신 말씀으로 일렀다.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수백 수천의 냇물들도 마침내 바다로 모이며 일단 바다에 이르면 모두 한 맛인 짭짤한 바닷물이 되듯 누구나 교단에 들어오면 똑같은 사문일 뿐이다.”

난타는 이윽고 우바리에게 공손하게 절을 했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52. 불입종 종정 태허 홍선 큰스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 나 자신을 형성해 갈 것이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로서 자신을 찾는 일은 영원한 빛을 향한 기원이다.”(태허홍선(太虛濼宣) 스님 유문집 <성불도>에서)

대한불교불입종은 우리나라 18개 종단의 하나이다. 법화사상을 배경으로 한 종단이 7~8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각 국사를 추종로 모신 종단은 그리 많지 않다. 1965년 이홍선 스님께서 창종을 한 뒤 1972년 정식으로 종단으로 발전했으며, 본사는 스님의 주거지인 종로구 송인동 묘각사였다. 스님의 아들 홍파스님이 동국대학교 후배인 까닭에 종중 묘법사에 들었는데, 정근 하는 소리가 특이했다.

“나무 삼달마 풍다리카 수드라(南薩 薩連摩 芬多利伽 修陀羅).”

나이드 그리 많지 않은 청년들이 이렇게 토론하고 있을 때, 스님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시며, “잘 한다. 잘해. 한국불교의 장래는 바로 너희들의 두 어깨에 달려 있다.” 하시고 칭찬하셨다.

“불입종(佛入宗)이란 <법화경> 방편품에 “여래의 지견을 열어(開) 보이고(示) 깨달아(悟) 들게 한다(入)”는 말을 줄여서 부른 이름이다. 여래의 지견은 ‘제법실상(諸法實相)’이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은 상(相), 이와 같은 성(性), 체(體), 력(力), 작용(用)에 의해 나타난다. 그 밑바닥에는 이와 같은 인(因), 연(緣), 과(果), 보(報)가 있어 이것을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본말구경(本末究竟)이다.”

이것을 중국의 지의 대사는 지관(止觀)을 통해 완성했지만, 고

에서 <법화경>을 사경하고 지냈으며, 서울로 올라와서는 매일 같이 탑골공원에 나가 포교했다. 1957년 법화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모아 ‘일승현정회’를 창립하고, 1965년에는 대한불교불입종을 창종했다.

이 종단은 ‘나무 삼달마 풍다리카 수드라’를 주력염송함으로써 법화삼매에 들고, 이를 정혜경수(淨慧兼修)로써 체득해 인류의 성불을 실현코자 한다. 또한 기복 신앙으로서의 불교가 아닌 ‘복될 일을 하자’는 불교, 재래 인습적이고 타율적인 종교가 아닌 자율적인 종교로서 자오(自照), 자각(自覺), 자증(自證)의 불교 신앙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총본산 송화사(총북 제천시 봉양읍)를 비롯하여 전국 150여 사찰과 230여 스님들이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앞으로 불입종은 행사 수련원을 설치해 종도 교육을 체계화 하는 한편 총본산 송화사 성

### ‘개시오입’ 의미 담아 불입종 창종... 법화사상으로 정진

“나무 묘법연화경”을 인도의 원을 그대로 읽는 것이다. 까만 동전에 누비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노랑 가사를 두르신 스님께서 한 번 앞으시면 두 세 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진하셨다. “스님, 답지 않습니까?”

“통산(洞山)은 무한서(無寒暑)라 하지 않았는가. 공부하는 사람이 춥고 더운 것 가리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나. 후원에 가서 공양이나 하고 가소.”

하여 후원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토론하곤 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분명 이 세상에 태어나 80세로 죽었는데?” “그것은 방편이야.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방편이고, 출가 수행한 것도 방편이고, 도를 이루고 전법 도생(傳法度生)한 것도 방편이고, 80세에 열반에 드신 것도 방편이야. 방편을 알면 진실을 알 수 있어. 그것이 곧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거든.”

리의 대각 국사는 정혜경수(淨慧兼修)로써 체득했는데, 홍선 스님은 “나무 삼달마풍다리카수드라”로써 증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종단은 불교교리가 바탕이 되어 창립됐기 때문에 사찰관리나 종도 문제 때문에 분열이 생기지 않아 화합종단으로서 진리 탐구에만 열중할 뿐이다.

스님의 법명은 홍선이고 법호가 태허이다. 전주 이씨로 속명은 용이이고 1905년 서울 경지중에서 태어났다. 1928년 경성고등전문학교를 나온 뒤 어머니가 별세하자 인생무상을 느끼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1930년 선암사 경운 스님께 발심하여 출가했다. 선암사 강원을 마치고, 동두천 백운암에 이르러 천일 안거하고, 중국불교 순례를 떠났다. 가 목불 한 분을 모시고 돌아와 서울 낙산에 자리 한 것이 묘각사 본당이 됐다.

한국 전쟁 당시는 상주 백화암

역학 사업 및 전통사찰 등록, 태허홍선 대조사 조사당 건립, 청소년 및 문화포교 강화 등을 통해 종단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1970년에는 한일불교친선회 고문으로 추대되고, 1971년에는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았으며, 전일본불교회의 초청으로 일본 불교를 돌아보고 오신 뒤로는 오직 포교와 전법에만 열중하시다가 1979년 6월 24일 세수 74세, 법랍 50세로 묘각사에서 입적하셨다. 128과의 사리가 나와 묘각사 경내에 사리탑을 세웠다. 제자에는 홍파·경조·경암 등이 있다.

재단법인 ‘관음종’이 만들어 지자 경조·경암 스님이 홍선 스님의 큰 뜻을 계승해 사단법인 불입종을 그대로 계승하고 홍파스님께서 관음종을 이끌어 한국 10대 종단 가운데 하나로서 화합종단의 기치를 높이 들어 선양하고 있다.

45인승 최신행 관광버스 무료지원합니다!

# 삼사순례 · 방생법회

**순례지**

- 1 옥천대성사(선남선녀인연맺기) 안심사(대둔산) 반야사(황간)
- 2 보석사(금산) 안국사(무주) 영국사(영동)
- 3 관촉사(논산) 개태사 쌍계사
- 4 갑사 신원사 마곡사

**방생지**

- 1 금산 부리면 적벽강
- 2 영동 양산 금강상류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소장: 정성운 / H.P: 010-5541-5535 / TEL: 070-7764-9002  
**금산인삼영농조합법인**